

“춘천~속초 고속철도 조기 추진하라”

도의회가 6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었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상임위를 열고 김성근(새누리·속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서고속화철도 개설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우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최대한 시간에 연결하는 핵심철도망으로 도민들의 열망과 숙원이 담긴 희망의 철도사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사업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경춘선 개통식에서 “기대해도 좋다”는 지원의사를 표명한 것은 물론 1987년 13대부터 지속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에 따라 편성된 50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철도 노선 역시 당초 노선(청량리~춘천~속초)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도의회 56주년 개원기념식에서 박상수 도의장과 최문순 지사는 한목소리로 3대 현안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박 도의장은 “도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결집해야



◇도의회 개원 56주년 기념행사가 6일 본회의장에서 박상수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태명기자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촉구 건의안 채택 56주년 개원기념식서 3대현안 해결 한목소리 박상수 의장·최문순 지사 정과 떠나 공조의지

한다”며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오색로프웨이 등 도발전을 견인할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 모두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축사에서 “8대 도의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도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최 지사는 이어 “도는 이를 토대로 3대 현안 해결에 도정의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지방

자치의 양대 축인 도의회와 집행부 수장이 정과를 떠나 도 현안 해결 공조 의지를 밝히면서 대선 정국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의 숙원인 도내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대선 정국에서 최대한 강원도 몫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도민의 의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스노보드 횡성 개최 관철 무기한 투쟁”

주민 2000여명 참여 유치 추진위 발족 12일 토론회 개최

“명분없는 양보 강요,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스노보드 종목 횡성 개최 불가 방침과 관련, 공식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횡성군민들의 각오다.

특히 횡성군민들은 최근 스노보드와 스키 프리스타일 두 종목의 세부경기가 각각 3개에서 5개로 늘어나 평창 보광 휘닉스 파크에서 총 10개 경기를 모두 소화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직위가 여전히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반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횡성군번영회 등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2018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유치 횡성군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6일 오후 횡성실내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민간 차원의 스노보드 종목 유치 운동에 돌입했다.

결성 당시 360명이었던 추진위 규모는 최근 1000명을 넘어섰으며, 이같은 동참 열기를 토대로 9개 읍면 전역에 700여개의 유치 염원 현수막을 빼곡히 내걸었다.



2018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유치 횡성군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6일 오후 횡성실내체육관에서 열려 참여자 2000여명이 결의문 채택 및 낭독과 구호 제창을 통해 스노보드 횡성 유치를 천명하고 있다. 횡성/정태욱

여기에 이날 발대식은 최근 확대된 추진위원의 두배에 달하는 2000여명이 참여, 실내체육관과 시가지지를 가득 메우는 등 횡성 민선 자치시대 개막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집회성 행사로 기록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날 추진위는 '요구 관철시까지 무기한 강력 투쟁'을 골자로 한 결의문 채택 및 구호 제창 등을 통해 스노보드 유치를 재천명했다. 또 머리띠를 두르고 현수막 15개, 피켓 30개를 든 채 실내체육관~횡성중·고 동문회관~

보경사우나-KT횡성지점-북천로타리-읍하우체국-시계탑으로 이어지는 횡성을 시가지 가도행진을 벌이며 주민들에게 유치 당위성을 강력 피력하고 운동 동참을 유도했다.

고석용 횡성군수는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조직위의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군민의 열망이 강원도와 조직위, 정부에 전달돼 반드시 지역의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대균·박명서·박덕식 공동위원장

은 "조직위가 약속을 어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동계올림픽에서 횡성을 배제하려 한다"며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투쟁해 횡성의 권리를 꼭 되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오는 12일 스노보드 유치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대상 건의문 전달, 조직위원장 및 도지사 방문, 횡성~도청-서울로 이어지는 대규모 릴레이 켈기대회 전개 등 유치 운동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횡성/정태욱 tae92@kado.net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해야”

도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당초 노선대로 추진 강조

강원도의회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김성근(속초·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개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경건위는 건의문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 국회에서 편성한

50억원을 집행하고, 국가 미래 비전 관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서고속화 철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핵심 교통망으로 경제성보다는 미래 수요를 고려해야 할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원하는 당초 (서울~춘천~속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원은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정부 압박 카드로 '춘천~속초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발의했으나 도의회 전체의 조직적인 대응 필요성과 개별 사안 특위 구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정식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3대 현안 특위'로 결의안 내용을 확대 수정, 내달 재발의할 계획이지만 이달 내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최종 구성 여부는 미지수다. 경건위는 이날 최재규(강릉·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조례안'을 심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결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이날 제56주년 개원 기념식을 가지고 활발한 하반기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김여진